



청송심씨 심벌마크

청송심씨 한마음대회

<특별종보>

발행인 : 회장 심대평
편집인 : 문화이사 심갑택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 5층
전화 : (02) 2267-7857
(02) 2267-9339
F A X : (02) 2269-7755
인쇄 : SNS인쇄
02-2277-0245

격월간 제138호(1955년 7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19년 8월 16일(금)



심민섭 화백

국내외 30만 청송 심씨 여러분, 10월 5일 청송에서 만납시다!



심대평 대종회 회장

지난해 4월 17일 청송심씨 대종회장에 취임하고, 처음으로 국내외 30만 일가분들께 안부 인사 올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신문화의 변혁기라 할 수 있습니다. 800년 역사의 심문(沈門)도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온 효(孝)와 우애(友愛)의 가풍(家風)과 송조돈목(崇祖敦睦)의 정신을 후대에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종회는 시조님 추향일에 맞춰 10월 5일 관향 청송에서 《청송심씨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대회의 목적은 일가들이 함께 시조님(휘:홍부) 문림랑공 추향제에 참석하고, 선조들의 열이 서린 유적 관람과 문화행사를 통해 우리 심문의 정체성을 재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들에게 심문의 자부심과 희망을 심어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키우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단위 참석을 권장하기 위해 '3대가 10인 이상 참석할 경우 특별상을 수여한다'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때 가족에는 외손, 며느리, 사위도 포함됩니다.

이번 대회는 상부상조를 미덕으로 삼아온 우리 심문의 전통을 살려 하나부터 열까지 심문 일가들의 성원과 지원으로 치르려 합니다. 행사장 준비, 안내, 식사, 연예인 출연 등 모두 심문 일가의 자발적인 재능기부와 열정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대회의 기본경비도 일가들의 십시일반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1만 명의 일가들이 1만 원씩만 후원해 주시면 충분히 대회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 후원금은 참가비가 아닙니다. 사정상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가들도 얼마든지 마음을 보탬 수 있습니다.

대종회에서는 후원해 주신 일가분 모두에게 청송심문 로고 뺏지와 이번에 새로 제작한 종사수첩을 보내드리고, 향후 연회비 1만 원을 내는 회원을 접수받아 각종 소식을 전달하고 모임에 초대하는 등 청송심문을 이끌어갈 핵심 종인으로서 예우할 생각입니다.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달 2일 경북 선산종회를 시작으로 이달 6일 경기 안양종회까지 전국을 순방했으며, 국내외 일가분들께 특집종보와 대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여러 일가분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들, 딸, 손자, 손녀의 손을 잡고 적극 참석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내외 청송심씨의 1%인 3,000명 이상이 모여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다면 청송심씨 발전에 더 없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늦더위 속에 건강 유의하시고, 10월 5일 청송에서 열리는 《청송심씨 한마음대회》에서 만나길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청송심씨대종회 회장 심대평

〈청송심씨 한마음대회〉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3대 10인 이상 참여 가족에게는 특별상을 드립니다”

〈청송심씨 한마음대회〉의 본행사는 10월 5일 열립니다. 그러나 그 전날 전일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회 운영진은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겠으나 일가분들께서는 운영진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회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3대가 10인 이상의 가족이 참석할 경우 특별상을 수여한다’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때 가족에는 며느리, 외손, 사위도 포함됩니다. 가능하면 3대가 손에 손을 잡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행사장 :** 경북 청송의 소헌공원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우선 소헌공원 앞 용전천변 행사장으로 오셔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에서 시조묘소, 만세루는 셔틀로 이동토록 안내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상주영덕고속도로 청송 게이트를 이용해 주시고, 청송시외버스터미널에서 소헌공원은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 2. 주차장 :** 행사장 앞에 승용차와 버스 주차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3. 숙박 :** 10월 4일부터 참석하는 일가로서 숙소를 원할 경우 청송의 심재환 운영실장(숙박담당)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10-8689-0735
- 4. 행사 진행표**(진행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월 4일 전일행사(14:00~17:00)			
행사명	장소	강사 또는 대상	내용
‘孝’ 학술포럼	찬경루	심우경 호문화원장	효의 과거, 현재, 미래는?
청소년 멘토링 아카데미	경의재	공직, 진학, 전문직 등 상담	진로상담 및 멘토-멘티결연
재능 전시회	소헌공원(운봉관)	시, 서예, 그림, 사진	10월 4일 오후 2시부터 5일 오후 4시 30분까지 전시
10월 5일 시조 추향제(09:00~11:30) 추향제를 지낸 후 지역별로 시차를 두어 참배합니다			
09:00~09:30	추향제	일가 누구나	제향위원회 주관
09:30~10:00	대구, 경북 지역		참배
10:00~10:30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참배
10:30~11:00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제주 지역		참배
11:00~11:30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		참배
11:00~11:30	孝 성인식	찬경루	20세 전후 남녀 각 10명
11:00~12:30	점심 식사	국밥 제공	
10월 5일 문화행사(12:30~16:30) 소원공원 앞 용전천변(사과축제장)			
자세한 시간은 추후 확정	개회식		참석자 소개 등
	청송심씨역사 소개		
	자랑스러운 청송 심문상 수여		심문을 빛낸 국내외 일가
	장학금 수여 및 스토리텔링(소감 발표)		청심장학회 선정 첫번째 대상자
	소헌왕후를 만나다		미래의 소헌왕후 10명이 소헌왕후상을 재현
	노래, 춤 등 심문 연예인 공연		
	경품 추첨 및 폐회식	일가들이 기증한 물품 등	

5. 참가 가능한 프로그램 및 신청방법

행사명	대상	신청방법
청소년 멘토링 아카데미	19~35세 남녀	csshim.or.kr(대중회) 02-2267-7857, 9339
재능전시회	제한없음	"
孝心인식	남녀 20세 전후 각 10명	"
소헌왕후를 만나다	여중 3~고2생	"
부스 신청	제한없음	"
인터넷족보 증보	누락 또는 정정분 접수	"

- 6. 식사 :** 10월 5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 사이에 국밥을 제공합니다.
- 7. 현장에서 안내해 주실 분 :** 심재환, 심장섭, 심남규, 심명환(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8. 한마음대회 집행위원**
 △오택(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상균(부산경제인총협회 회장) △상조(대유토건 대표) △재섭(㈜우리 대표) △익섭(부경피엠씨 대표) △재구(인수부윤공파 총무이사) △진섭(㈜골든포우 대표) △덕섭(전 국가보훈처 차관) △원섭(안효공파 총무이사) △재덕(대중회 부회장) △충식(㈜선광 대표) △재각(연희시니어스 회장) △재윤(코리아타임스 편집국장) △숙희(안성밝은집요양원 원장) △보균(전 행정안전부 차관) △용락(㈜대경사로 대표)
- 9. 한마음대회 중앙운영위원**
 △경품팀장=양섭(서울) △진행팀장=우섭(서울), 일(부산), 희수(대구), 규선(대전) 동섭(철원) 영희(경북) △생수팀장=왕섭(서울) △장학팀장=종원(부산) △배식팀장=유택(대구) △수단팀장=중식(인천) △포상팀장=민섭(광주) △CD팀장=재윤(광주) △의전팀장=문보(대전) △등록팀장=명보(울산) △심벌팀장=규섭(오산) △기념품팀장=창선(김포) △심문 역사팀장=재현(용인) △3대팀장=성기(춘천) △앨범팀장=광석(원주) △재능전시팀장=상학(청주) △식전행사팀장=충섭(충북) △아카데미팀장=규익(충남) △제향팀장=웅근(아산) △특식팀장=도섭(당진) △소헌왕후팀장=재열(전북) △인력팀장=규중(전북) △포럼팀장=우식(곡성) △무대팀장=재수(여수) △운영실장=재환(청송) △부스팀장=장섭(청송) △교통팀장=남규(청송) △좌석배정팀장=명환(청송) △연예인팀장=충현(선산) △메시지팀장=흥보(창원) △성인식팀장=재상(합천) △의무팀장=진식(경남)



8월 2일 대전역사 회의실에서 있었던 중앙운영위원 위촉식

이 종보를 보신 분께 부탁드립니다.

대중회는 이번 한마음대회를 일가들이 보내주시는 성금으로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만 원 후원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종인 여러분의 정성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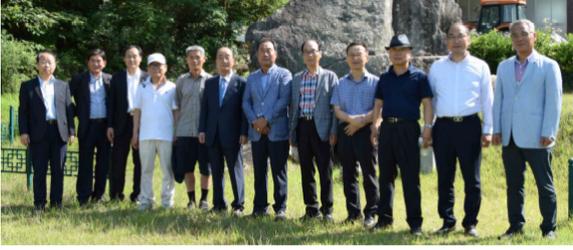
★한마음대회 후원계좌: 농협 301-0254-7374-11

예금주: 청송심씨 대중회

- 성금을 보내신 분들께 수첩과 배지 등을 보내드리려 하니 후원금을 보내신 후 한마음대회 준비단 재무담당 심규정 이메일(kyujungshim01@daum.net)로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꼭 보내주세요.

한마음대회 홍보 투어에서 만난 열기

“가는 곳마다 성공 기원...그 마음을 모아 10월 5일로!”



경북 선산 광주부윤공중회(7월 2일) 영의정을 지낸 공숙공(諱:澹)을 길러준 양아버지 강거민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3년간 시묘살이를 했다는 시묘암 앞에서 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봤다.



대구중회(7월 2일) 10월 5일 한마음대회 운영위원(100명)은 대구중회 청·장년회가 중심이 된다!



전북 군산 임피중회(7월 7일) 임피중회는 송원 심재순(松園 沈載洵) 애국지사 공적비를 건립해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받았다. 지금은 <애국지사 송원 심재순 선생 기념사업회>가 그 뜻을 이어가고 있다.



관향 경북 청송(7월 14일) 보광사 주지 무구 스님도 청송 심씨 후손으로 경내의 만세루를 정성껏 관리하고 있다. 청송에는 만세루 외에도 보광사 극락전, 벽절정, 찬경루, 송소고택, 소류정, 초전택, 요동재사, 찰방공파종택 등 조상의 숨결이 깃든 곳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울산 내금위중회(7월 16일) 2018년 1월 현재 야음동 송호마을 청송심씨 세거지에는 청송심씨들이 모여 살고 있다. 울산에는 문중 재실인 갈현재(葛峴齋)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천재공(泉齋公) 심환(沈煥·1545~1612)을 추모하는 여전당(麗泉堂)이 있다.



강원도 춘천 신천공파 대선중회(7월 19일) 춘천중회, 원주중회, 신천공파 대선중회가 뭉쳤다. 한마음대회를 계기로 이들 중회들은 더욱 자주 만나기로 했다.



경남 창원 사복시정공파 중회(7월 21일) 일요일도 반납하고 진주, 마산, 함천, 함안, 의령, 산청 등지에서 일가 어른신분들이 모이셨다. 대평 회장은 이날 모임에서 창원 사복시정공파 재실 앞뜰에 금송 한 그루를 기념식수했다.



김포 신천공파 지경중회(7월 23일) 내자시 관공중회 등 13개 파중회와 인천중회에서 참석했다. 이날 인순왕후와 8경의 父(諱: 綱), 조부(諱: 連源), 증조부(諱: 順門) 묘역도 참배했다. 90세된 만보 어른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광주 금당산중회(7월 24일) 대중회 부회장인 상우(관사공중회장), 대섭(지성주사공중회장), 재규(광주 청광회장) 일가가 광주광역시에서 만났다. 이들은 “한마음대회 전야제에 참석하기 위해 이미 10월 4일 청송 송소고택 예약을 마쳤다”고 말했다.



전남 곡성 중회(7월 24일) 곡성에는 조선 중종 38년(1543년) 심광형이 이 지역 유림들과 풍류를 즐기기 위해 지은 함허정(涵虛亭)이라는 정자가 유명하다.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정자 아래로는 섬진강이 흐르고 멀리 무등산이 보이는 경치 좋은 곳이다.



대전·세종·충남중회(7월 25일) 충남도지사 출신 대중회 회장이 주재하는 한마음대회를 충청도 일가들이 앞장서 성공시키자! 이날 전국적으로 유명한 ‘심중섭표 파베기’도 청송으로 간다.



충북 청주중회(7월 25일) 4세조 청성백(諱: 德符) 할아버지 배위 청주 宋씨 할머니 묘소 앞에서 대회의 성공을 다짐했다.



경기 안양 부사공중회(8월 6일) 삼북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원도 철원중회, 전북 중회, 동서울중회, 경기 안성중회와 수원 안효공묘하 일가들께서 안양에 모여 한마음대회에 큰 관심을 보였다.

3대가 참가를 준비 중인 가족들

“먼훗날 손주들이 청송을 기억해 준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가족 10명과 함께 가는 심대섭 씨



만약 어느 가정이 당사자들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고 아내와 두 아들 부부, 그리고 손자 5명을 전부 데리고 1박 2일동안 심씨 문중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호기는 지켜질 것인가, 아니면 깨질 것인가. 부권(夫權)과 부권(父權)이 땅에 떨어졌다는 요즘, 그 약속은 허언(虛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약속을 딱 하니 지키는 가정이 있다. 품이 난다. 전북 익산에 사는 심대섭(沈大燮·72) 씨다.

취재를 하며 느낀 것인데 대섭 씨는 그런 약속을 해놓고도 전혀 걱정을 안 한 것 같다.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 부자(父子)는 다른 집안과는 달리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 우리가 하도 재미있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맥주집 주인이 서비스를 준 적도 있다.”

그뿐 아니다. 대섭 씨는 익산시 석암동에 선산을 갖고 있는데 사진을 보니 금잔디가 기름이 잘잘 흐를 정도로 관리가 일품이다. 두 아들 덕분이다. 큰아



얼마 전 가족 11명이 모두 지리산 온천으로 놀러 가서 찍은 사진.

들 재범(44)은 익산과 신동탄에서 철강사업체(이름이 ‘청송철강’ 이다)을 운영하고 있고, 작은 아들 재훈(42)은 공학박사로 서울의 K화학에서 연구원 30명을 거느린 간부로 일하고 있다.

두 아들은 핏줄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며느리는? 대섭 씨가 슬그머니 이런 말을 했다. “두 며느리에게 차도 사주고 대학원비도 대준 적이 있다” 고. 오호, 역시...

그렇다면 손주 5명과도 뭔가 있을 듯하다. 이 대목에선 사모님(이명자·71)이 나섰다.

“애들이 그래도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려고 하는 편이다. 오면 근처의 지리산과 키즈카페 등으로 데리고 가서 재미있게 놀도록 해 준다.” 대섭 씨도 거들었다. “애들이 오면 나이에 맞춰 꼭 용돈을 준다” 고도 했다.

그럼, 사모님은? 기자는 대섭 씨에게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다. “연금을 집사람과 완전히 반으로 나눠서 쓰고 있다.”

돈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돈이면 다 된다는 뜻이 아니다. 대섭 씨가 가장으로서의 권위에 매몰되지 않고 변화하는 세상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낭창거리지만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처럼.

대섭 씨의 연배가 모두 그렇듯 그도 평탄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니다. 진안군 정천국민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는 6·25전쟁 와중에 고향 석암리로 돌아오다 빨치산에게 끌려가 행방불명됐다. 그때 어머니는 28살이었고, 4살짜리 대섭 씨와 2살짜리 남동생을 두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당연히 생활은 곤궁했다.

대섭 씨는 1974년 철도청에 취업해 수색역에서 근무하다 편찮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1980년 익산역 근무를 자원했다. 2000년부터 순천역에서 근무하다 2004년 정년퇴직했다. 아내와 2인3각으로 35년간 모시던 홀어머니는 2015년 92세로 타계했다.

대섭 씨가 종종 일에 관여한 것은 5년 전부터. “법사랑, 익산문화원 등 지역사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어느 날 ‘이제는 문중을 위해서도 일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전북총회 부회장, 대총회 이사, 안효공총회 이사 등으로 일하고 있다.

가족들과 청송에 가는 것이 대섭 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손자들이 우리 선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지를, 아니 청송에 온 것만이라도 기억해 준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는가.”

큰아들 재범 씨에게 물었다. 아버지가 갑자기 청송에 가자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언젠가 뿌리 교육 삼아 아이들을 데리고 꼭 한번 가려고 했다. 마침 좋은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 기꺼이 함께 가기로 했다.”

부전자전이다. 며느리와 손주 이름도 기록으로 남겨 두자. 큰 며느리 이정은, 딸 아영(중3), 민지(초3), 작은 며느리 오재연, 딸 설아(초4), 아정(초1), 아들 현보(6).

아 참, 또 하나 밝혀둘 것이 있다. 대섭 대부를 취재 하러 가자 근처에 사는 종친 어른 12명이 응원을 나오셨다. 기자 생활을 오래했지만 이런 호사를 누려본 적이 없다. 사진으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심대섭 씨 인터뷰를 계기로 주위 어른들이 모였다. 앞줄 왼쪽부터 심안보(임피총회 고문), 상영(대총회 전 고문), 현근(대총회 부회장), 상용(임피총회 명예회장), 뒷줄 왼쪽부터 수영(전북총회장), 재열(전북청장년회장), 창섭(안효공총회 이사), 정수(대총회 함열유사), 방섭(임피총회 부회장), 재양(임피총회 고문), 대섭(전북총회 부회장) 재판 일가(임피총회 총무이사). 재집(익산군산축협장) 일가도 오셨으나 사진은 함께 찍지 못했다.

“엄마와 할머니의 뿌리도 소중한것 아닌가요”

아들 가족을 데려가고 싶은 심숙희 씨



“아버지가 오랫동안 생존해 계시면서 나를 잘 돌봐주셨다면, 오늘날의 내가 있었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대개 어려움을 딛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경기도 안성에서 <밝은집요양원>을 운영하는 심숙희(沈淑熙·67) 일가도 그렇다. 비록 여자이긴 하지만 10월 5일 ‘청송심씨 한마음대회’에 거는 기대는 누구 못지않다. 가족들을 모두 데려가고 싶다고 했다.

“시아버지가 나를 처음 보시고는 ‘청송 심씨’라고 하니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때 청송 심씨가 대단한 집안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일본 강점기 때 징병을 나갔던 아버지는 귀국했으나 숙희 씨가 7살 때 돌아가셨다. 2남 2녀 중 맨 위의 오빠만 안성에 남고 언니와 본인, 남

동생은 강원도 원주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고모부가 거뒀다.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야간중학을 다녔다. 그러나 지금은 복지경영학 석사학위를 가진 어엿한 요양원 원장님이다.

안성에서는 그를 ‘사회복지의 대모’라고 부른다. 3년간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9년간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남부지부장(안성 용인 평택 오산 화성)을 지냈으니 그럴 만도 하다.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비롯해 상도 참 많이 받았다. 며느리 이미나 씨(46)는 “시아머니는 당신이 못했거나 모르는 것에 대한 ‘갈증’이 심해서, 꼭 해야 하고, 알고야 마는 열정이 강하다”고 했다.

숙희 씨는 1973년 안성 공도 출신인 목회자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2000년 1월 별세). 화성에서 목회 활동을 하다 1989년 안성으로 옮겨와 요양원도 열었다. 요양원은 본인이 운영하고 요양원안의 산우물교회는 목사인 아들 병윤 씨(46)가 인도하고 있다. 병윤 씨는 3녀 1남을 뒀다.

숙희 씨는 무엇보다 <밝은집요양원>이 4년 연속 최우수평가를 받은 것이 자랑스럽다. 이 요양

원에는 현재 6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숙희 씨는 30여년 간 450여명을 직접 입관했을 정도로 정성을 쏟고 있다. 그것이 30여 명 가까운 직원들을 통솔하는 법이기도 하다.

“지금 내 나이의 여자가 누가 뿌리를 찾겠습니까. 그러나 엄마와 할머니의 뿌리를 다른 성을 가진 아들과 손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나는 참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도 조상 묘앞에서 보고하고 싶습니다.”



앞줄 왼쪽부터 아들 병윤, 숙희 씨, 며느리 이미나 씨, 뒷줄 왼쪽부터 손자 김예원(고2), 손녀 예은(대학2), 예슬(대학4), 예담(고3).

<청송심씨 한마음대회>에 거는 기대들

“청송 심씨 아니면 꿈도 못 꾸는 대회 아닌가요?”



심동섭
대중회 부회장

7월 21일 대중회 집행부가 한마음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경남 지역을 방문하셨다. 경남에서는 창원의 온양공과 사복시정공 종중에서 주관했는데, 사복시정 종회는 물론이고 두산정보존회, 마산 수운관공공 종회, 창원 진주 합천 함안 의령 산청 이반성 등 각 지역종회 대표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일요일이었고, 강력한 태풍이 목포에 상륙해서 경남을 관통한다는 주의보가 계속 나왔는데도 모임은 대성황을 이뤘다. 태풍도 폭우도 우리 일가들의 열성과 충천한 사기를 꺾지는 못했다. 대평 회장님께서 다음날 건강 검진 때문에 급식 통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보은병에 죽을 싸 들고 폭우를 뚫고 천리 길을 달려오신 모습을 보고 우리 일가들은 신선한 감동을 받았다. 전국의 우리 일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뜻을 모아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태풍도 폭우도 이긴 한마음대회 설명회”



심상열
원주형성종회장

우리 원주·횡성 지역 종회는 청송심씨 문중의 장손인 도총제공과 종회와 인수부운공과 지역종회, 율리공과 종회, 그 외 안효공과 후손들이 함께 송조돈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1986년 5월 종회를 발족시킨 후 33년 동안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마음대회’에 우리 종회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한마음대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심문 가족 일가 친지들에게 뿌리의식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어르신들, 청장년들, 여성분들, 아이들, 이렇게 3대가 참여하여 우리 심문의 자긍심을 높이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가 어린 청소년들이 국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심재모
대중회 이사

한 세상 살아가면서 앞만 보고 가족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60이 넘어서야 종사에 관심을 두고 5세조 안효공과, 11세조 온양공, 18세조 사복시정공종친회 총무, 감사를 역임하고 대중회 이사를 맡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중 0.5%에 지나지 않는 소수 성씨지만 3왕후, 13정승, 4부마 등 명신을 배출한 훌륭한 가문이 어디 있겠는가? 이번 한마음대회에 자식, 손자와 참석해 살아 있는 뿌리 교육을 받으려고 한다. 자식, 손자들에게 어릴 때부터 훌륭한 뿌리 교육을 시켜 국가에 필요한 인재로 키우고 싶다. 우리 창원 문중에서도 버스 3대를 계약하고 협찬금을 준비해서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청송심씨 가족은 손에 손잡고 가슴과 가슴을 이어 한마음대회에 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청송심씨의 자존감과 훌륭한 가문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마음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버스 3대를 이미 예약했습니다”



심재원
코리타임스 편집국장

2015년 현재 전국의 청송심씨는 24만 768명. 해외 거주자까지 포함하면 약 30만 명이라고 한다. 이번 대회에 약 3000명이 모인다고 하면 청송심씨 백 명 중 한 명이 참석하는 셈이다. 참으로 대단한 단합대회인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무엇보다 ‘청송 심씨는 일가’라는 우애와 심가로서의 자긍심, 뿌리에 대한 깊은 애착과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에 답이 있지 않을까. 숫자는 적어도 귀하고 강한 가문이라는 긍지를 가슴에 품고 있는 연유일 것이다. 수많은 왕후 장상 등 고관 대작을 많이 배출한 삼한갑족이라는 명에도 좋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우선하고 그들을 위해 베푸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은 우리 심문을 더욱 빛나게 하는 자랑스러운 가풍이다. 모쪼록 이런 심문의 긍지가 이번 대회를 통해 더욱 고양되고,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 귀감이 되어 우리 사회의 훌륭한 재목으로 자라게 하는 정신적인 동기부여가 되길 기대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계기로”



심충식
청심회 회장

저희 조부와 부친 등 집안 어른들께서 적지 않은 세월을 종사에 헌신하셨는데, 저 또한 과분하게 청심회장과 대중회 청장년위원장을 맡아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청송심씨의 30만 후손은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안으로는 가정에 충실하고, 밖으로는 사회와 국가에 헌신하는 삶을 영위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조선의 역사에서 항상 중심에 섰던 우리 심문은 기회주의를 용납하지 않고 오로지 청빈과 청렴을 가문의 자랑으로 여겨왔습니다. 한마음대회는 우리 청송심씨 가문의 발전을 확인하고 결심하는 자리이자, 우리 후손들에게 가문의 정통성을 심어주어 향후 국가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자부심을 길러주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처럼 뜻깊은 대회는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중 여러분이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일 것입니다.

“십시일반으로 돕는 게 성공의 지름길”



심가영·심가희
태평무 이수자

저희 자매는 40여 년 동안 세계 100여개국에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때마다 각 국에서 청송 심씨라며 반겨주시던 종친 어르신들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희로서는 이번 한마음대회에 거는 기대가 남다릅니다. 요즘 같은 핵가족과 물질만능의 시대에 심문의 청소년들이 종친 어르신들에게 효사상도 배우고 문화시대에 걸맞는 공연 관람, 그림 그리기, 도자기 체험 등도 하면서 자연과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대회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한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심문이 뭉치고 뭉쳐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심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심규순
명지대 무용과 교수

어린 시절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는 우리집과 한 집 건너 큰집에 사셨다. 책가방을 휘두르며 귀가하는 나를 할아버지께서는 부르시며 “그래, 학교에선 뭘 배웠느냐”고 묻곤 하셨다. 노래와 율동으로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를 즐겁게 헤드리면 옆에서 바느질하던 할머니는 “저런 새살쟁이~”라며 눈을 흘기시면서도 콧노래로 박자를 맞춰주셨다. 지금도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는 휴남새, 팽남새가 정겨운 친정집에 가면 흰 수염에 긴 곱방대를 물고 계시던 정자 십자 증조할아버지와 정갈한 모습으로 허리 곧추 세워 앉으시고 심씨 족보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재자 현자 할아버지가 생각난다. 현실은 극복해야 할 숙제가 너무도 많다. 그런 혼돈 속에서 심씨라는 뿌리와 근본을 생각하면 왠지 뿌듯해지고 흐뭇해진다. 마치 든든한 주춧돌 위의 듩직한 기둥을 안고 있다는 느낌이랄까. 이번 한마음대회가 혈연을 넘어 돈독한 정으로 이어지는 장이 되길 기대해본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립습니다”



심유탉
대구종회 청장년회장

제 이름 석자만 듣고도 주변 사람들은 청송심씨는 대단한 양반이라고 합니다. 단지 청송심씨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어깨가 절로 올라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지역에 살면서 대구종회는 물론 청장년회에 몸담아 활동을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만 아직도 종친회 발전을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 열리는 ‘청송심씨 한마음대회’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작은 힘이지만 적극적으로 보태겠습니다. 이번 한마음대회를 계기로 우리 심문이 과거의 영광과 전통을 되찾고,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뿌려 천년만년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만 듣고도 양반이라고 합니다”



심규민
충남대 대학원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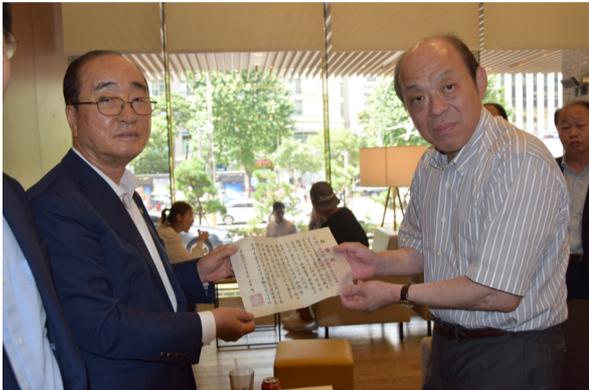
안효공과 27세손인데 할아버지는 한학을 하셔서 족보를 정리하시고 일가들과 종친회를 다니시는 일을 낙으로 여기신다. 예로부터 청송 심씨는 훌륭한 분들을 많이 배출한 훌륭한 가문이라는 말을 들으며 조상의 얼과 정신을 이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그런 생각을 더욱 가다듬고 싶다. 전국 각지와 해외에 계신 청송 심씨 일가들도 한자리에 모여 조상의 얼과 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이번 대회는 후손들이 조상의 뜻을 어떻게 이어받을지를 생각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뭐든지 바쁘다고 하면서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살아왔다. 이번에는 바쁘다는 말을 뒤로 미루고 모두가 흔쾌히 참여하는 한마음대회를 꿈꿔본다.

“훌륭한 가문,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

국내외에서 대회를 빛내주러 오는 일가들

“어려운 한일 관계...심문으로서 도움 줄 일 찾겠다”

일본 사쓰마야키 15대 심수관



8월 6일 대평 대총회장(왼쪽)이 15대 심수관에게 <청송심씨 한마음대회> 초청장을 전달하고 있다.

“400년 이상 해외에 살면서도 뿌리를 잃지 않고 살아온 그 정신을 오늘날 심문의 젊은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

“3000여 명이나 모인다니 놀랍다. 여러 사람 앞에서 본 적은 없지만 꼭 참석해서 일가들을 만나

보고 싶다.”

8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가든호텔 커피숍에서 심대평 대총회장이 일본 도자기 명가 사쓰마야키(薩摩燒)의 15대 심수관에게 10월 5일 <청송심씨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장을 전달하고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대평 회장은 1598년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잡혀가 400년 이상 도공의 길을 걸으며 명가를 이룬 심수관 일가가 한마음대회에 꼭 참석해 국내외의 여러 일가와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15대 심수관은 마침 그날 도치기현 현청소재지 우쓰노미야(宇都宮)에서 개인전을 여는데, 어떻게든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대평 회장은 6월 16일 향년 93세로 타계한 14대 심수관 옹의 장례에 참석하지 못한 결례에 대해 양해를 구했고, 15대 심수관은 대총회에서 조화를 보내주는 등 여러모로 신경을 써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당시 총식 침심회 회장이 심문을 대표해 직접 가고시마를 찾아가 조문했다.

한편 15대 심수관 씨는 지난 6월에 G20 정상회담 차 오사카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교민들을

위한 만찬 리셉션을 열었을 때 본인이 만든 도자기 접시를 선물했다. 이때 문 대통령이 14대 심수관의 별세에 대해 정중하게 조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대평 회장은 앞으로 심문의 젊은이들을 가고시마의 심수관 도요(陶窯)에 보낼 테니 잘 교육시켜 달라는 부탁도 했고, 15대 심수관은 흔쾌히 수용했다.



6월 27일 오사카 뉴오타니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에서 제15대 심수관 씨(왼쪽에서 두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쓰마 난화도(蘭花圖) 접시를 선물하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 종친회는 25세대가 모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종친회장 심상욱



상욱 회장은 1972년 캐나다로 이민을 갔으니 곧 50년이다.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그는 ‘이민 박사’로 불린다.

“1973년부터 제조업을 하면서 한인 기술자를 고용 이민으로 많이 초청했습니다. 한국 정부표창도 받고, 외무부

산하 국제협력단의 전신인 해외개발공사의 캐나다 고문으로도 위촉받았지요. 이민 법률회사를 설립해 약 6000여 세대의 한국인을 캐나다로 불러들였습니다. 캐나다 교민의 30% 정도는 제 손을 거쳐 이민을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 간지 3년 후인 1975년 아버지의 회갑을 맞았다. 토론토의 전화번호부와 교회주소록을 뒤져 심씨를 찾았다. 2가족을 찾아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들을 초청해 회갑연을 열었다. 생전 처음 만났지만 금방 친해졌다.

그는 딸 넷을 낳고 다섯째로 아들(지섭)을 낳았다. 작고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

“지섭이를 2009년 서울대 대학원에 입학시켰습니다. 한국어도 한국어지만 뿌리를 가르치기 위해 서였습니다. 나도 그때 지섭이를 따라 서울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대총회를 방문하고 청송 시조묘와 수원의 안효공 할아버지 묘소도 참배했지요.”

상욱 씨는 토론토로 돌아가자마자 청송심씨 토론토 종회를 만들었다. 올해로 만 10년째다. 현재 25

세대가 매년 두 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골프도 하면서 친목을 다지고 있다. 그의 뿌리 사랑은 외국이어서 더욱 뜨겁다.



캐나다 거주 일가들과의 모임. 화환 오른쪽 첫 번째 서 있는 이가 심상욱씨

어머니 이옥선씨 이름으로 심천석씨 1천만원 기탁

한마음대회 성공을 기원하며...



앞은이가 어머니 이옥선 씨, 뒷줄 왼쪽부터 옥선 씨의 딸, 아들 천석 씨, 며느리.

경북 선산 종회 심천석 씨가 어머니 이옥선 씨의 이름으로 <청송심씨 한마음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1000만 원을 쾌척했다. 천석 씨는 6

세조 공숙공의 20세손이다. 아버님도 생전에 향사와

종회에 적극 참가하셨다고 한다. 천석 씨도 공숙공의 양부 강주부공의 향사를 매년 모시고 있고 선산 종회 총무로 십여 년을 봉사하고 있다.

천석 씨의 어머니는 2014년에도 700만 원, 2015년에도 700만 원을 익명으로 기탁한 적이 있다. 그렇다고 천석 씨 네가 부자는 아니다. 99세의 노모를 모시면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거금을 기부한 것은 오로지 심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 이번에도 기부 사실을 익명으로 해 달라고 했으나 대총회는 천석 씨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름을 밝히기로 했다. 천석 씨 가족에게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대총회 고문단 600만원 쾌척



8월 5일 서울 중구 퇴계로의 중국음식점 동보성에서는 고문단 간담회가 열렸다(사진). 이날 회의에서 고문단은 10월 5일 개최하는 <청송심씨 한마음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술선했겠다고 우선 600만 원을 모아 헌성하기로 결의했다. 대부분 80세가 넘으신 고문단의 정성에 대평 회장께서는 깊은 감사를 표시했다.

한마음대회에서 만나게 될 조상들의 숨결

아! 아름다워라 찬경루, 소헌공원, 만세루, 송소고택...

10월 5일 <청송심씨 한마음대회>가 열리는 행사장 주변에는 우리 심문과 관련된 문화재나 명소가 많다. 이 면에서는 그런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찬경루: 시조묘를 우러러 찬미하다.



소헌공원 안에 있는 <찬경루>는 “청송심씨 시조묘를 바라보며 우러러 찬미한다” 는 뜻을 담고 있다.

누각에서 보광산에 있는 소헌왕후의 시조묘를 바라보며 우러러 찬미한다” 는 뜻으로 ‘찬경루’ 라고 했다는 것이다.

찬경루는 16칸 2층 누각인데 일설에 의하면 세종의 여덟 왕자들이 어머니 소헌왕후 심씨를 위해 2칸씩 지었다고도 전해진다. 보광산으로 가는 용전천(龍纏川)이 범람해서 시조 심홍부(沈洪孚)의 묘소로 갈 수 없을 때는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중간에 화재로 소실돼 1688년(숙종 14)에 중수했다.

누각에 걸쳐 있는 <송백강릉(松栢岡陵)>이란 현관은 세종의 셋째아들이자 명필로 유명한 안평대군의 글씨이다. 1984년 12월 29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83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 소헌공원과 현비암



<현비암>은 청송심씨 소헌왕후와 같은 현명한 왕비가 청송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기리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소헌공원>에는 찬경루 외에도 운봉관(雲鳳館)이라는 객사가 있다. 이 역시 청송부사 하담이 찬경루를 지을 때인 1428년에 건립한 것을 복원한 것이다. 송시열(宋時烈)이 쓴 기문(記文)에 따르면 1600년경에 한 차례 중건됐으며 이후 몇 차례 중수됐다.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에 항의하여 1896년 의병들이 청송의진(靑松義陳)을 결성한 곳이 바로 운봉관이다. 운봉관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52호로 지정되었다. 운봉관 옆에는 청송향교에 있던 선정비 등 군내의 선정비 10기를 모아 놓고 있다.

소헌공원 내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찬경루를 마주하고 있는 곳에 <현비암(賢妃岩)>이 있다. 청송 읍내를 관통하는 용전천변에 있는 높이 20여m의 절벽이다. <현비암>이라는 이름도 이 바위 뒷산 보광산에 청송심씨의 시조묘가 있고, 그 심씨 문중에서 소헌왕후 심씨 같은 어진 왕비가 태어났다고 해서 붙인 것이다. 2006년에 50여m의 인공 쌍폭포를 설치하고 야간 조명시설까지 갖춰 청송의 또 다른 명물로 부상했다.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월막리)에는 <찬경루(讚慶樓)>라는 조선시대 누각이 있다. 1428년(세종 10)에 청송부사 하담(河澗)이 지었다. <찬경루기(讚慶樓記)>에 따르면 이름을 지은 이는 경상도관찰사 홍여방(洪汝方)이다. 그는 하담의 청을 받고 “이

청송군은 찬경루가 있는 곳을 2011년 <소헌공원(昭憲公園)>이라고 이름 지어 관리하고 있다. 공원 명칭은 2010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청송군민과 출향인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결정했다. 물론 세종의 비인 청송심씨 소헌왕후에서 유래한 것이다.

3. 만세루와 보광사

청송군 청송읍 현충로(덕리)에는 <만세루(萬歲樓)>라는 누각이 있다. <보광사(普光寺)> 경내에 있는데 절 안으로 들어 서면 오른쪽의 극락전(보물 1840호)과 마주하고 있다. 세종이 역시 청송부사 하담에게 명하여 건립한 청송심씨 시조의 묘재각(墓齋閣)이다. 누각 내에는 경상



<보광사> 경내에 있는 <만세루>는 청송심씨 시조인 심홍부의 묘재각으로 건립한 것이다. <보광사>도 원래는 시조묘를 수호하기 위해 지은 절이다.

도관찰사, 이조판서, 대사간, 대사헌 등을 지낸 심성희(沈聖希) 등 청송심씨의 후손들이 기록한 현판 3점이 걸려 있다. 1856년(철종 7) 심씨 후손들이 고쳐 세웠으며, 1958년에 또 중수했다(이때 22대손인 심상각(沈相恪)이 상량문을 짓는다). 그 뒤 1968년 찬경루를 중수할 때 이 누각도 재차 수리했다. 2017년 9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09호로 지정됐다.

한 문중의 묘재각이 어찌서 절의 경내에 있는가. 그것은 보광사라는 절 자체가 청송심씨 시조묘를 수호하기 위해 지었기 때문이다. 보광사라는 이름은 18세기 중엽에 간행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처음 등장한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보광사는 관아의 남쪽 5리에 있으며 심홍부(沈洪孚)의 무덤을 수호하는 사찰” 이라 하여 청송심씨의 원당 사찰임을 밝히고 있다. 보광사 극락전 보수 공사 중에 발견된 상량문에는 1615년(광해군 7년)에 건축되었다는 내용이 있어, 적어도 16세기경에 창건되었으리라 짐작된다.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은해사(銀海寺)의 말사이다. 만세루는 청송심씨 문중과 보광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4. 송소고택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에는 조상의 숨결이 담긴 <송소고택(松韶古宅)>이 있다.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송소고택길>로 정한 것만 봐도 이 고택의 무게를 알 수 있다. <송소고택>은 조선 영조 때 만석꾼인 심처대(沈處大)의 7



<송소고택>은 1880년 송소 심호택이 지은 99칸짜리 만석꾼의 집으로 지금은 숙박체험의 명소로 알려져 있다.

대손 송소 심호택(松韶 沈琥澤)이 1880년에 지은 집으로 파천면 지거리 호박골에서 원래 조상들이 살던 덕천리로 이사를 하며 지었다고 한다. 민가로서는 최대인 99칸집이다. 강릉 선교장, 보은 선병국 가옥과 함께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는 조선 3대 99칸집으로 불린다.

지금은 후손인 심재오, 최윤희 부부가 집을 지키며 숙소로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1.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99칸짜리 고택 중 하나인 만석꾼의 집. 2. 2012년 문화관광부(한국관광공사) 지정 한국관광의별(숙박체험부문) 대상 수상. 3. 연간 7만명 정도가 관광하고, 연간 약 5천~6천명 정도가 숙박 체험. 4. 국가지정 민속자료 250호.

<청심장학회> 발족에 즈음하여

“청심장학회가 한마음대회에서 처음 선을 보입니다”



심오택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이사 겸 장학운영위원장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2019년 7월 29일 재단법인 '청심장학회'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청송 심문 역사상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장학재단이 공익법인으로 출범한 것이다. 축하할 일이고 경사스러운 일이다. 우리 심문에는 지금도 지

과중회별로 장학회가 있고 대중회도 그동안 장학회를 운영해 왔다. 그렇지만 이번에 출범한 청심장학회는 기존의 장학회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명실상부하게 각 분야의 젊은 영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도자로 키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장학회를 지향한다. 따라서 생활이 어렵다고 지원하지 않으며 한번 주고 끝내지도 않을 것이다. 지역적으로 안배도 하지 않고, 숫자 채우기식 선발도 하지 않는다. 청심장학회는 개방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장학생에 외손도 포함하고 장학회의 운영기구에 사위도 참여할 것이다. 청심장학회는 설립 취지에 따라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첫째, '청송 미래리더 장학금' 사업이다. 국가와 사회, 공동체를 선도할 젊은 인재를 분야별로

조기 발굴해서(예: 고교 1년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장학금을 지급할 것이다.

둘째, '청송 멘토링' 사업이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사들이 장학생의 멘토가 되어 이들을 올바른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지도할 것이다.

셋째, '자랑스러운 청송인상' 사업이다.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귀감이 되는 인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할 것이다. 심문의 효행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청송 효행상'도 운영하고자 한다.

넷째, '청송 아카데미' 사업이다. 장기적으로 청송 심문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가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인성 연구와 교육기관으로서 '청송 아카데미'를 설립할 것이다.

장학회의 사활은 우수한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재원의 확보에 달려 있다. 청심장학회는 장학생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할 것이며, 장학생의 재능과 함께 인성, 열정과 의지, 주위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장학회의 재원은 뜻있는 종인의 기부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청심장학회가 첫 발을 뗐다. 이제부터 우리 심문의 귀중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심문 전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심문 전체가 장학생을 추천하고 장학 재원의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자랑스러운 심문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뜻있는 종인과 기업인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망된다. 청심장학회의 발전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열정, 관심과 지원에 달려 있다.

2019년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

재단법인 청심장학회가 2019년7월29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득하였습니다. 2019년10월5일 청송심씨한마음대회에서 수여할 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품행이 올바르고 재능이 출중하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잠재성이 유망한 자
선발인원	인원 : 10명 이내
선발대상	고교생, 대학(원)생
선발방법	장학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발
수혜금액	300만원 ~ 500만원
지원서류	1. 장학금 신청서 2. 추천서 3.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4. 장래 목표 도전 계획서 5. 서약서 6. 학교재학증명서 7. 가족관계 증명서 8.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9. 기타 증명서류(수상실적, 전문능력증명서 등) *신청 양식은 청송심씨대중회 홈페이지(www.csshim.or.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제 출 처	(재) 청심장학회 사무국(02-2267-7857)
제출기한	2019년 8월 26일 ~ 09월 10일 까지
장학금 수여	2019년 10월 5일 청송심씨한마음대회

2019년도 추계향사일 안내(秋季 享祀日 案内)

世	諱(이름)	陽曆	陰曆	曜日	場所	主管
始祖	文林郎公(諱:洪孚)	10.05	한마음대회	토	경북 청송군 청송읍 덕리 산33, 보광산	大宗會
	中臺墓所	10.05	"	토	경북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산1, 중대산	大宗會
一	閭門祗侯公(諱:淵)	10.09	09.11	수	전북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산64-1, 남당산	大宗會
一	奉翊大夫公(諱:晟)	10.23	09.25	수	강원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31(설단)	大宗會
三	靑華府院君(諱:龍)	10.11	09.13	금	경기 안성시 당왕동 산19-6	大宗會
三	靑華府院君配位 金氏	10.11	09.13	금	경기 안성시 도기동 산64	大宗會
三	判書公(諱:漣)	10.23	09.25	수	강원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31(설단)	大宗會
三	上護軍公(諱:鄉)	10.23	09.25	수	강원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31 (설단)	大宗會
四	靑城伯(諱:德符)	10.13	09.15	일	경기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110	大宗會
四	靑城伯 配位 淸州宋氏	10.15	09.17	화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65-1	大宗會
★時享 奉享時間 : 始祖 오전 9時 그 외는 午前 11時에 奉享함★						大宗會

각종찬조현황 2019. 5. 24 ~ 2019. 7. 31

■ 각 찬조 50만 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게재



이옥선 (경북 구미
故심재동 의 妻,
주 친석) 사북시정공창원총회 (회장 재열)
광주두암총회 (회장 헌섭)
울산내금위총회 (회장 규화)
공속공중회 (회장 총택)
안효공파중회 (회장 무섭)

한마음대회후원금 1천만원 2019년7월	한마음대회후원금 200만원 2019년7월	종보찬조 100만원 2019년7월	종보.한마음후원금 180만원 2019년6월	종보찬조 100만원 2019년5월	종보찬조 500만원 2019년4월
-----------------------------	------------------------------	--------------------------	-------------------------------	--------------------------	--------------------------

임원회비

부회장회비	300,000	총택(서울), 상현(강원)
이사회비	50,000	성택(대구), 정섭(서울), 상근(전주)

한마음대회 후원금

10,000,000	이옥선
2,000,000	온양공파 사북시정공창원총회 (회장 재열)
300,000	내금위총회(회장 규화) 두산정(회장 경섭)

종보찬조

1,500,000	울산내금위총회(회장 규화)
1,000,000	공속공중회(회장 총택), 광주두암총회(회장 헌섭)
600,000	영신상사
200,000	연촌(수원)
100,000	현석(대구)
60,000	강채(전남)
50,000	극택(경기)
30,000	재운(대전), 호웅(대구)